

중국, 저고도 경제 제도화와 전기수직이착륙기 상용화 확대로 산업 생태계 성장세 가속

해당국가	중국	기관(기업)	Daxue Consulting, 신화통신	동향분야	시장	국토교통 기술분류	항공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- 중국은 저고도 경제를 「제15차 5개년 계획 요강」의 신형산업 육성 분야에 포함하고 민용항공법 개정과 무인항공기 표준 정비를 통해 전기수직이착륙기(eVTOL) 상용화 기반 구축을 본격화
 - 개정 민용항공법 시행과 저고도 경제 표준체계 정비를 통해 저고도 공역 운영 기준과 eVTOL 등 신규 항공기 운항 제도 기반의 구축 확대
 - 2026년 7월 시행되는 개정 민용항공법은 저고도 경제 발전 촉진 조항을 신설하고, 300m 이하 공역 관리와 eVTOL 등 신규 항공기 운영 기준을 제도화
 - 민용항공국(CAAC)과 관계 부처는 저고도 경제 표준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술 표준화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추진
 - 무인항공기(UAV) 실명등록 의무화 시행과 선전·광저우 등 주요 지역의 저고도 경제 지원 확대를 통해 저고도 산업 생태계 확산의 기반을 강화
 - 2026년 5월부터 UAV 운항 식별·실명등록 의무 기준이 시행되며 '1기체 1코드' 기반 전 과정 추적 체계를 구축
 - 선전·광저우·허페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저고도 경제 지원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며 물류, 순찰, 응급 구조, 관광 등 응용 분야를 확대
- 중국 저고도 경제 시장은 eVTOL 상용화와 기술·자본 집결을 바탕으로 빠르게 확대되며 대규모 산업 생태계의 형성을 가속화
 - 저고도 경제 시장 확대와 eVTOL 상용 서비스 적용 확산을 통해 항공기 제조 및 인프라, 운영 서비스 중심 산업 생태계 성장 가속화
 - 중국 저고도 경제 시장은 2025년 약 1조 5천억 위안(약 285조 원) 규모로 확대되고, 2035년까지 약 3조5천억 위안(약 665조 원)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
 - eVTOL은 소형·경량 구조와 운영의 효율을 바탕으로 에어택시와 화물 운송 등 다양한 상용 서비스 분야에서 적용 확대
 - 세계드론대회 개최와 AI·수소에너지·신소재 등 연관 기술 융합 확산을 통해 저고도 산업 상용화의 기반 확대
 - 2026년 5월 선전 세계드론대회에는 17개 국가·지역과 1,2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며 저고도 산업의 기술 및 자본 집결과 산업 연계가 확대
 - eVTOL, 대형 무인 헬기, AI 기반 감지 시스템 등 상용화 수준 기술이 공개되면서 AI, 수소에너지, 신소재와의 융합 확대

※ 출처 : Daxue Consulting(2026.03.30), China's low-altitude economy